



## 말띠 해에 한마디

〈홍 보 부〉

西紀 1990년은 檀紀로 4323년이며, 千支로 庚午年에 해당한다. 즉 말띠해인 것이다.

아직 미신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한층 극성스러운 일이 새해 벽두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는 이들이 아직 많고 또 여자가 말띠일 때 거부감을 갖는 나이든 분들이 적지 않은게 우리네 사정이다.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임신모 가운데 더 한층 아들출산에 집착하는 이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

가뜩이나 아들 선호관념이 깊어 온갖 미신, 민간요법에 첨단의학기술까지 동원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즈음에 만약 이러한 미신을 믿는 여성들이 많다면 새해를 맞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첨단의학기술까지 동원해 기

필코 아들을 낳는 여성들이 많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해 놓은 남녀출산비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현재 농촌사정처럼 장가못하는 청년들이 도시에도 넘쳐 「도시노총각, 장가 못가 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지면을 덮을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그릇된 미신을 타파할 수 밖에 없다.

말띠 여성이 어느때부터 기피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조선왕조의 왕비중 말띠여성이 적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일제시대 이후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속담·미신 가운데 倭色을 띤 것이 많은데 「말띠 여성은 팔자가 세다」는 등 말띠 여성에 불리한 미신도 바로 이 시기에 생긴 倭色性 미신의 하나가 아

닌가 한다.

이같은 미신은 여성이 잘 나면 오히려 천덕꾸러기 노릇을 해야했던 시절에나 통용됨직한 것이요, 요즘 같이 여성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말띠해인 庚午年에는 아무쪼록 총명하고, 의리있고, 우아하고, 민첩하고, 건강한 자질을 지닌 千金駿駒(천금준구=천금의 값이 있는 좋은 새끼말) 같은 여자아기가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

말의 해에 몇가지 말에 얽힌 警勿을 적어본다.

☆名馬란 힘을 일컬음이 아니다. 그 덕을 말하는 것이다(驥不稱其力 稱其德也—孔子)

☆만약 사람의 가치가 그가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된다면 말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말은 일도 잘하며 무엇보다도 잔소리를 하는 법이 없다(N.V.고골리). 雜錄